

“이웃사랑엔 종교벽 없어요”

가톨릭 성직자와 스님 사이의 아름다운 인연이 불우이웃에게 따뜻한 밥을 보시하게 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남 고성 베네딕트수도원(원장 여해동(살레시오) 수사)이 지난 3일 전남 보성 대원사(주지 현장스님) 자비행회에 독거노인 도시락 공양에 써달라며, 금식 기도로 모은 성금 500만원을 전달해 잔잔한 화제가 되고 있다.

베네딕트 수도원 대원사에 500만원 기탁 “독거노인 급식에 써달라”...종교화합 본보기

여해동 수사와 이연학(요나) 수사가 정성스럽게 모은 성금을 대원사 현장스님에게 전달한 것은 5년 전 로마 그레고리안대학의 예우지니오 교수신부와 이해인 수녀 등과 함께 대원사에서 하루를 묵으며 문화와 종교의 벽을 넘나드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인연이 되었다. 이번 성

금 전달은 그때부터 이어온 종교화합 분위기를 한차원 승화시켜 ‘이웃 사랑’에 종교의 구별이 따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계기를 만든 것. 수사들은 대원사 신도들이 결성한 봉사단체인 자비행회가 독거노인 110명에게 매일 도시락을 전달하고, 병원·지역 등에서 간병·

호스피스 봉사를 펼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곳’이란 소식을 통해 보고서 곧바로 수도원회의를 거쳐 기도성금을 모았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사랑의 마음이 아무런 주저 없이 종교를 뛰어넘어 전달된 것이다. 대원사 주지 현장스님은 “수사님들의 사랑의 정성을 통해 종교의 사벽이 고동받은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를 새삼 깨달았다”면서 “자비봉사를 통해 호남지역의 불교 활성화는 물론 종교화합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광주 시내 2층 건물에 시민선방과 함께 법당, 교육장, 사무실 등을 갖추고 사회봉사에 나선 자비행회는 160명의 회원들이 전남대병원 등에서 호스피스 활동을 펼치는 한편 주 3회 고아원 원



○베네딕트수도원 살레시오 원장 수사(오른쪽)와 이연학 수사가 대원사 주지 현장스님과 자리를 함께 했다.

생 돌보기, 매달 1회 양로원·소년원 위문, 호스피스교육 등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자비행회 김명실 총무는 “호남 지역에는 불교 호스피스 봉사활동이 전무한만큼 타종교 봉사단체와 연대해 모범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필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보살행을 머리가 아닌 몸으로 실천하는 불자들의 손길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새천년 평화시대 이루자”

강원불교련 4일 기원제

영산재·산불이재민 돕기

강원도와 강원도불교연합회는 단오절을 하루 앞둔 6월4일 정오 강릉 경포해수욕장에서 ‘새천년 자유·평화와 민족화합을 위한 기원제’를 개최한다. 강원도가 2000년을 맞아 추진하는 ‘밀레니엄 르네상스’ 18개 상징사업 중 첫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식전 행사로 사물놀이 및 도립예술단 공연과 폐막이문식, 1부 기원제, 2부 영산재 및 방생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낚시 방생과 함께 불자들의 ‘환경운동 동참선언문’ 채택, 강원도 산불피해성금 모금 등

인간방생도 펼쳐질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계종 3·4교구본사 신홍사·월정사 신도들의 산불피해성금 모으기, 태고종 영산재보존회의 폐막이문 및 영산재 시연, 천태종 연합합창단(300명)의 찬불가 공연 등 도내 1만여 불자들이 한마음이 되어 마련하는 이번 행사는 자비·보시를 근간으로 자유·공존·상생의 삶을 지향하는 참다운 방생의 정신을 도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마련됐다. 권혁인 기획관리실장은 “단한 마음을 열고 더불어 착한 삶을 살라는 방생의 참뜻인 ‘작선(作善)’을 생명 존중과 인간화, 화해와 협력, 사랑과 평화의 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밀레니엄 르네상스’ 운동의 시발점으로 삼았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춘천=김재경 기자

미얀마선원 서울서 개원

남방불교 포교·인권보호

국내에 거주하는 미얀마 불자들의 수행공간이 될 미얀마선원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에 문을 열었다. 150명의 미얀마 출신 노동자와 가족들, 그리고 방글라데시 출신의 이보스님, 아일랜드 출신 아다사스님, 대만출신 유과스님, 전재성 팔리정정회장이 참석해 이날 개원법회에서 미얀마 출신 산디마스님이 “미얀마와 태국, 스리랑카 등 남방불교권 노동자들에게 부처님 법을 가르치는 안식처를 제공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미얀마선원은 40평 규모의 한옥을 임차한 것. 국내에서 외국인 스

동국대 경주캠퍼스 석림회 불우학생에도 6백50만원 지원.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재학 중인 스님들의 모임인 석림회(회장 학현스님) 회원 1백30여명과 재학생·불교신도 4백여명은 19일 경북 경주시 일원에서 탁발에 나서 모은 1천3백만원의 강원도 산불이재민 돕기에 써달라며 중앙일보에 기탁했다. 이들은 또 불우학우들에게 써달라며 탁발로 모은 6백50만원을 대학측에 전달했다. 김재경 기자

익산 미륵사지 역사·문화촌 세운다

72만㎡에 미륵사·주거지 복원

전북 익산시 금마면 미륵사지(국가사적 150호) 주변에 대규모 역사·문화촌이 조성될 전망이다. 23일 익산시에 따르면 미륵사지 주변 경관이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되는 것을 막고 백제말 고도(古都)인 익산의 문화적 전통을 배우며 즐길 수 있도록 72만㎡ 규모의 역사문화촌을 미륵사지 일대에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원광대 부설 ‘도시 및 지역개발연구소’에 의뢰해 수립한 ‘미륵사지 주변지역 정비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역사·문화촌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역사·문화촌은 역사·문화, 미륵신앙, 교육 및 공연, 동서화합, 민속, 세계종교, 전통음식 및 상가.

전통공예 제작 및 판매, 숙박, 공공편익 등의 주제에 따라 10개 공간으로 나누어 균형있게 개발될 예정이다. 이중 역사·문화공간에는 미륵사와 왕궁정성의 축소 재현, 마한·백제시대의 주거지의 복원 및 삼국시대 탑과 왕릉이 비교 전시된다. 역사·문화촌 조성을 위한 총사업비는 용지매입비 67억여원, 건축비 보상비 43억여원, 공사비 75억여원 등 모두 2백70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역사·문화촌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과 재원 조달 방안, 공사착수 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을 현재 마련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산불이재민 돕기 1천3백만원 전달

동국대 경주캠퍼스 석림회

불우학생에도 6백50만원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재학 중인 스님들의 모임인 석림회(회장 학현스님) 회원 1백30여명과 재학생·불교신도 4백여명은 19일 경북 경주시 일원에서 탁발에 나서 모은 1천3백만원의 강원도 산불이재민 돕기에 써달라며 중앙일보에 기탁했다. 이들은 또 불우학우들에게 써달라며 탁발로 모은 6백50만원을 대학측에 전달했다. 김재경 기자

대구 BBS사장기 축구대회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불심을 지향하며 올해도 2회째를 맞는 대구 불교방송 사장기 축구대회가 21일부터 28일까지 능인·삼인 등 종립

중고등학교(사진)와 두류운동장에서 개최됐다. 참가팀은 지난해 우승팀인 대구·경북새연동회를 비롯 운봉면 은해사 언론인불자회 등 총17팀.



법타스님은 “전천후 스포츠를 통하여 학교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승가와 재가가 함께 어울어지는 전범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이윤호 기자

열린종교 시민대학 개강

열린종교시민대학(학장 심산스님)



이 18일 통도사부사포교원 2층 화엄회관에서 개강식을 가졌다.(사진) 통도사 주지 신허스님, 송영웅 풀빛교회 목사 등 불교, 개신교, 원불교, 천도교 성직자와 수강생 140명이 참석한 이날 개강식에서 서울대 정진종교수(종교학)는 ‘새천년과 종교의식’을 주제로 특강했다. 열린종교시민대학은 6개월간 5대 종교의 본질과 역할, 종교문화, 신행생활 등을 강의한다. 학장 심산스님은 “서로 다른 종교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진지한 고민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종단 소식

조계종
금산사 청소년 모악축제
17교구 본사 금산사(주지 도영)는 28일 경내 잔디밭에서 김제시내 중증 장애인 70명을 초청, 위문법회를 가졌다. 또 6월4일 중·고생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청소년 모악축제를 열고 백일장, 사생대회, 합창경연대회를 펼친다.

태고종
168명에 승적 발급
13~16일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지난해 합동등도수계산림에 참가한 제23기 수계자를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연수교육에 참가한 168명(사미 129명, 사미니 39명)에게 승적을 발급했다. 이번 연수교육은 예불 및 108배 참회하루 17시간 강의와 율력, 참선, 토론회 등으로 진행됐다.

대한법회종
심인당 사이버카페 개설
부산 동래 명륜심인당과 대구 동구 서북심인당이 각각 사이버카페를 개설했다. 자료실, 대화방, 초대하기 등 다양한 코너를 갖추고 회원제 운영하자는 명륜심인당의 주소는 http://cafe.daum.net/youthbuddhist, 서북심인당은 http://cafe.daum.net/sibok 이다.

이충담스님 2주기 추모제
지난 98년 소신열반한 이충담 대종사 2주기 추모제가 6월5일 오후 1시 호명산 감로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제막하게 될 사리탑비는 종정 덕암스님이 비명을 짓고 동호 스님이 글을 새겼으며 총 높이 340cm, 비신 높이 210cm, 거북이모양의 대석 60cm, 용머리 모양의 옥개석 높이 70cm이다.

전대종
대전 삼문사 상량식
대전 삼문사(주지 세운)는 6월3일 오전 11시 삼문사 상량식을 갖는다. 상량식에는 도용 종정스님, 운덕 총무원장스님 등 1천여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042)221-3367

진각종
포교활성화 간담회
포교활성화와 종단발전을 위해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맑은길 아바타센터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합장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TEL : (02)396-2736 H.P. : 016-228-2358

관세음보살님께 전수받은 딱 엮 제

수십년간 작품을 모시고 영험을 본 기적!!
나의 작품을 모시고 재수가 있고 취적이 되고 입시등 시험 합격 가정이 화합하고 투쟁시비가 없고 부부간이나 가족이 마음이 안정해짐

수십년간 많은 영험과 기적은 수련한 나의 동경 위신의 기력인 것이다.
나의 친필 작품을 모셔보지 않은 사람이 이런 영험과 기적은 모를 것이다

▶ 입금계좌
농협 801814-51-031377
예금주: 김춘길

선천기관중 보금가
· 임죽만안선 친필 13만원
· 법화경 수량품 친필 20만원 10쪽
· 불자나 기타 액자 친필 3만원

전 풍 사
보금처 대한불교대승연화회
연락처: 0591) 746-7350 017) 552-7350

영탑공급원(전국) 모집

▶ 묘지의 혁신
· 천안 영락사 영탑이 해결합니다.
· 영탑기본형 1기에 유골 20여기 봉안으로 문중, 종중, 탑, 선산, 정원 등에 설치
· 조상 대대로 봉안하여 성묘나 제사 모시기가 편리하고 가족화합이 잘됩니다.
· 국내외 사찰경내에 신도의 조상을 함께 모시므로 그 자손이 대대로 신도가 된다.
· 전국 사찰경내 신도영가 영탑설치 환영.
· 영탑사업에 동참하실 주주를 모집합니다.
· 벤처기업으로(특히) 국내외에 사업확장.
· 벤처기업 실무유경험자 0명 모집합니다.

▶ home-page : WWW.YRP.CO.KR

천안영락사 영락영탑공원

▶ 충남 천안시 입장면 시장리 51-35번지(우) 330-820
▶ TEL : 0417)584-6674~6 FAX 0417)584-2335 011)438-0149
▶ home-page : WWW.YRP.CO.KR

사찰 내 암반굴착 공사 전문

당사는 암반굴착 전문 기술 업체로 사찰내의 석굴불사 족조 및 기타 불사에서 암반제거 작업을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석굴족조작업과 같은 터널작업에 많은 기술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맡겨주시면 성심껏 작업하겠습니다.

▶ 시공방법
① 다르다, HRS 등에 의한 무진동 굴착 공법
② 플라즈마, 제어발파 등에 의한 미진동 굴착 공법... 그 외 여러 가지 공법 중 주변 환경과 작업여건에 따라 공인기술 자격을 보유한 본사의 기술진들이 적절한 공법을 적용, 원하시는 대로 실현해 드립니다.

▶ 문의전화 : 02)719-5371/2
02)719-7614 (FAX)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36-1 한신 1511호

“현재 상주시 연수암 내 석굴 불사 족조 작업 중”

(주) 세엔 ENG 기술사사무소

생전·현재의 모습 100% 재현

밀남

■ 사진 1장으로 영정을 대신할 생전의 모습을 100% 재현합니다.
■ 밀남은 살아계신 고승·종정·은사스님을 재현 현재의 모습으로 가까이서 모실수 있습니다.
■ 일반회사 창업주, 학교 설립자 이사장, 역사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을 조성해 드립니다.
■ 크기는 실제 모습을 기준합니다. (얇은모습 서있는 모습)
■ 밀남은 동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영구적 재료 사용)

한국불교 미술 밀남 연구원
원장 법인 합장

▶ 전시장(작업실) 천안시 오룡동 56-5
▶ 대표 전화 0417)565-6977
▶ 권 금 016)565-6977